

TV 불륜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혼 남녀의 문제의식에 정서적 성숙이 미치는 효과 - 자기지각과 혼외관계인식의 이중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희진¹, 이원준^{2*}

¹한동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²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Effect of Emotional Maturity on the Critical Mind of Married Men and Women on TV Affair Drama Contents - Focusing on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Self-Awareness and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Hee-Jin Lee¹, Won-June Lee^{2*}

¹School of Communication Arts, Handong Glob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a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TV 불륜 드라마의 콘텐츠에 대한 기혼 남녀의 비판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TV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혼 남녀의 비판의식에 이들의 정서적 성숙이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 그리고 자기지각과 혼외관계인식이 각각 미치는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를 밝히는 것이다. 자료 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TV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혼 남성과 기혼여성의 비판의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수준이었다. 둘째, 기혼 남녀의 정서적 성숙은 TV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해 이들이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정서적 성숙은 자기지각 혹은 혼외관계인식을 각각 매개(mediator)로 하여, TV 불륜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혼 남녀의 비판의식을 높이는데 유의한 효과를 미칠 수 있어, 자기지각과 혼외관계인식의 완전매개효과(full mediating effect)가 입증되었다. 셋째 정서적 성숙은 자기지각 수준을 높이고, 혼외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심리특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혼 남녀의 정서적 성숙은 자기지각 그리고 혼외관계인식과 함께, TV 불륜드라마 콘텐츠에 대해 기혼 남녀의 비판의식을 높이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주요 심리특성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ritical minds of married men and women regarding TV affair drama contents and to reveal the direct effect of their emotional maturity on their critical mind about TV affair dramas and the mediation effect of self-awareness and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s, respectively. The notabl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ritical mind of married and married women toward TV affair dramas is generally insufficient. Second, their emotional maturation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critical mind toward TV affair drama. On the other hand, emotional maturity ca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raising the critical awareness of married men and women about TV affair dramas by self-awareness or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s as a mediator, respectively. A full mediating effect is demonstrated. Third, emotional maturity is a positiv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that can raise the level of self-awareness and raise the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s. Therefore, the emotional maturity of married men and women is a majo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that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in raising their critical awareness about TV affair dramas, along with self-awareness and extra-marital relationships.

Keywords : Extra-Marital Relationship, Criticism of TV Drama, Infidelity, Self-Awareness, Multiple Mediation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Won-June Lee(Changshin Univ.)

email: wjlee@cs.ac.kr

Received July 27, 2022

Accepted October 7, 2022

Revised September 13, 2022

Published October 31,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개인의 성인식과 성규범을 형성하는 성적 사회화(sexual socialization)과정은 성인기를 통해서도 지속된다[1-4]. 오늘날 대중매체는 성적 사회화의 중요한 동인(agent)이 되고 있다[5-7]. 대표적인 대중 매체인 텔레비전의 드라마(drama)는 인기 있는 장르로 “동시대의 문화 속에서 매일 매일의 내러티브의 원천이자 생성원”으로, 많은 담론을 생산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7,8]. ‘불륜’(infidelity)은 이러한 TV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는 인기 있는 소재이다[7]. 불륜을 주제로 한 많은 TV드라마들(청춘의 뒤통, 모래성, 장밋빛 인생, 부부의 세계 등)은 시청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7].

하지만 현실에서 불륜행위는 결혼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혼인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2015.2) 되었기 때문에 혼외관계 당사자들은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회적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이 드라마의 인기 있는 소재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 선행연구자들은 “불륜 드라마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며, 비극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극적 소재로서 매력적”이라 피력하였다[9,10].

하지만 불륜 드라마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드라마가 불륜을 지나치게 미화시키고, 비상식적인 소재로 개연성이 낮은 스토리를 전개하여, 시청자들에게 혼외성에 대한 그릇된 환상(fantasy)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4]. 더구나 기혼자들은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혼외관계를 자신들의 상황에 대입하여 인식할 수 있기 더욱 쉬울 것이다.

불륜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는 사회화(socialization)의 영향으로 기혼자들의 혼외성행동과 같은 성일탈에 대한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기혼자들이 ‘불륜’ 드라마의 콘텐츠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할 경우, 혼외성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불륜 드라마에 대한 기혼자들의 문제(비판)의식이 기혼자의 혼외성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실증연구는 없지만, 불륜 드라마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은 기혼 여성일수록, 혼외관계에 대해 더 수용적인 인식을 가진다는 사실은 입증되었다[7].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힌 성(性)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행위’간의 높은 상관성을 고려할 때[8,11,12], 혼외관계에 대해 수용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혼외성행위를 실행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러한 논의들을 종합해볼 때, 불륜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의 결여는 기혼자들의 혼외성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risk-factor)로 간주할 수 있다. TV 불륜 드라마의 콘텐츠에 대한 기혼자의 비판의식은 혼외성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영상매체의 성표현 장면 시청이 정서적 효과인 수용자의 느낌 감정적 반응, 심리적 상태를 야기시키고 나아가 행동적 효과로 표출된다는 것”을 밝힌 Davis와 Braucht의 연구에서도 이론적 근거(rationale)를 찾을 수 있다[13,14].

TV 불륜 드라마의 콘텐츠에 대해서 기혼 남성들과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기혼 남성들과 기혼 여성들이 TV 불륜 드라마의 콘텐츠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이들의 성적 일탈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불륜 드라마에 대한 기혼 남녀의 비판의식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들의 비판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자기통제력, 책임감, 판단력 등은 기혼 남녀가 성적 일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심리특성일 것이다. 자기통제, 책임감, 판단력 등은 지적 성숙, 정서적 안정성, 이성 관계에 대한 건강한 인식 등과 함께, 개인의 정서적 성숙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indicators)로 제시되고 있다[15,16]. 정서적으로 성숙과 혼외관계에 대한 문제의식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3,16].

개인의 정서적 성숙이 혼외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정서적 성숙은 불륜(혼외관계)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콘텐츠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추론된다. 혼외관계인식이 불륜 드라마에 대한 문제(비판)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7], 반대로 혼외관계인식이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정도 설정해볼 수 있다. 혼외관계(불륜)에 대해서 덜 문제시하는 경우,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대해서도 덜 비판적일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점을 토대로, 정서적으로 성숙할수록 자신의 혼외관계에 비판적일 수 있고, 자신의 혼외관계에 비판적인 인식을 할수록 TV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비판의식(약칭: 불륜 드라마 콘텐츠 비판의식) 수준도 높을

것이다. 따라서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 남녀의 인식은 이들의 정서적 성숙이 불륜 드라마 콘텐츠 비판의식에 미치는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요인(mediator)로 작용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볼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 기혼 여성의 '자기지각'(self-awareness)이 이들의 불륜 드라마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7]. 자기지각(self-awareness)은 "상황에 적합한 행동과 자기평가적인 대응을 증가"시킬 수 있다[4,17]. 앞서 정서적 성숙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 특성을 고려할 때[15,16], 개인의 자기지각 수준은 정서적 성숙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기혼 남녀가 정서적으로 성숙할수록 자기지각이 증가하고, 자기지각이 증가할수록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혼 남녀의 비판의식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볼 수 있다. 자기지각은 정서적 성숙이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비판의식과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지는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해야 할 과제이다. 불륜 드라마에 대한 인식을 탐색한 실증연구는 매우 드물다. 극소수의 연구가 보고되었지만, 상관관계와 같은 단선적 분석(lineal analysis)에 기초하여 관련요인들 간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어렵거나, 연구대상이 기혼 여성들에만 한정되어,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4,7]. 후속연구인 본 연구를 통해서, 연구 내용의 확장은 물론,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상의 진전(advance)도 도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 남녀의 정서적 성숙이 TV 드라마 불륜 콘텐츠에 대한 비판의식(이하 '불륜 드라마 콘텐츠 비판의식'이라 칭함)에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 그리고 정서적 성숙이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혼남녀의 비판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지각' 혹은 '혼외관계인식'이 각각 미치는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를 함께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기혼 남녀의 건강한 성적 사회화(sexual socialization)에 필요한 TV 불륜 드라마 콘텐츠 비판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문헌검토

2.1 불륜 드라마 콘텐츠, 혼외관계인식

'불륜'(infidelity)은 합법적인 결혼을 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혼외관계'(extra-marital relationship)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7,9,10,15]. '불륜'과 '혼외관계', '외도' 등의 용어들은 서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배우자 외의 다른 이성과의 성적 행위는 '불륜' 및 '혼외관계'의 중요한 바로미터로 인식되고 있지만[7], "육체적 성적 행위 뿐 만 아니라, 정서적 몰입,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사랑을 표현한 개념"[3]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18-20]. 이러한 광의의 개념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혼외관계인식 혹은 불륜 콘텐츠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혼외관계인식'과 '불륜 콘텐츠'의 조작적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혼외관계인식'은 "본인이 혼외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생각)하는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혼외관계인식을 설문조사 참여자(응답자)들의 혼외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자신(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응답자들의 혼외관계인식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불륜 드라마 콘텐츠'의 조작적 정의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불륜'을 중요한 소재로 다루는 드라마이다.

2.2 정서적 성숙이 불륜 드라마 콘텐츠 비판의식에 미치는 효과

Subbarayan과 Visvanathan은 정서적 성숙을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심리특성임을 강조하였다[21]. 정서적 성숙은 자기(self)와 자아(ego)의 작용에 의한 충동통제과정으로 자신의 인지, 정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22,23], 판단력, 책임감과 같은 특성과 함께 다양한 긍정적 특성(지적 성숙, 정서적 이성관계에 대한 건강한 인식 등)을 내포하고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다[3,15,24]. 정서적 성숙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정서적으로 성숙한 기혼남녀는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콘텐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불륜에 대한 지나친 미화", "외도를 부추김", "가정의 가치훼손", "필요이상의 노골적 성적 묘사" 등의 내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7,25]. 정서적 성숙은 개인의 귀한 자질이자 중요한 개인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연구가정은 “개인 자원은 개인이 환경에 대해 얼마나 통제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라는 자원 이론적 관점에서 이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26].

정서적 성숙이 혼외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이고 [16], 불륜 드라마 비판의식이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 여성의 문제의식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7], 정서적 성숙이 불륜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볼 수 있다. 정서적 성숙과 불륜 드라마에 대한 문제의식과의 상관성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가 있지만[4], 이 연구는 단순상관관계에 기초한 분석결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 성숙이 불륜 드라마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함에 있어서, 다른 관련 변인들이 미치는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성숙이 어떤 매개요인들의 영향으로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3 정서적 성숙이 불륜드라마 비판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지각’과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

자기지각이론(self-awareness theory)은 “사람들은 의식적인 상태에서 외부대상(예: 다른 사람, 대중매체와 같은 환경) 및 내부대상(예: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외모 등과 같은 자아)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7,27,28]. 앞서 논의했던 정서적 성숙과 자기지각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개인의 자기지각 능력은 개인의 정서적 성숙성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자기지각은 “상황에 적합한 행동과 자기평가적인 대응이 증가시킨다”[4,17]. 개인의 정서적 성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자기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TV 불륜 드라마의 콘텐츠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자기지각과 불륜 드라마에 대한 문제의식과는 정적 상관성이 있음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전술한 추론들을 토대로, 자기지각은 기혼 남녀의 정서적 성숙이 TV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비판의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매개요인(mediator)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연구가정도 자원이론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하였던 정서적 성숙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

한 긍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정서적으로 성숙한 기혼 남녀일수록 혼인의 중요한 규범인 성적 배타성을 위배하는 혼외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것이다. 혼외관계에 비판적인 기혼 남녀는 불륜을 주제로 한 TV 드라마 콘텐츠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더 가질 것이라는 추론 또한 가능하다. 혼외관계인식과 TV 불륜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인식은 모두 공통적으로 ‘불륜’에 대한 개인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어, 혼외관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기혼 남녀가 TV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는 “생각요소는 절(node)로 구성되어 있어, 그 경로를 통하여 방출활동을 하여, 연관된 생각들을 활성화시킨다”는 점화효과(priming) 및 전개활성화(spreading) 개념을 토대로 구성된 Berkowitz의 점화가설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3,25].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 연구문제1. TV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혼남녀의 비판의식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2. 기혼 남녀의 정서적 성숙은 TV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혼 남녀의 비판의식에 직접적인 영향(효과)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3. 기혼 남녀의 자기지각은 정서적 성숙이 TV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비판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가?
- 연구문제4.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 남녀의 인식은 정서적 성숙이 TV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비판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개의 연구문제들(research questions)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주요 변인들(TV 불륜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비판의식, ‘정서적 성숙’, ‘자기 지각’, ‘혼외관계 수용성’)간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에 대한 경로들(paths)을 도식화하여 아래 Fig. 1에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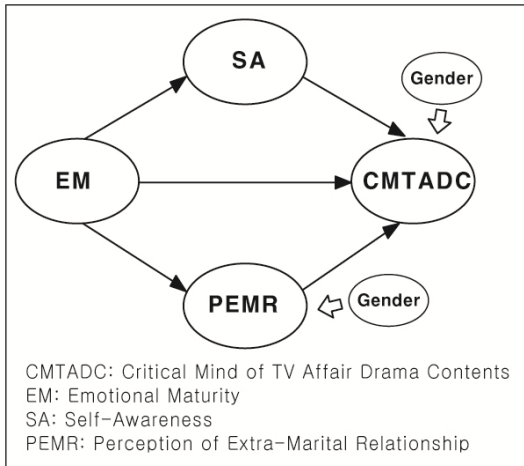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Analysis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data)는 설문조사(survey)를 실시하여 얻은 것이다. 조사응답자들은 인터넷 서베이업체의 유료 패널(전국단위)에 등록된 사람들이다. 모두 기혼자들이며,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는 약 2주(2019.10.7-10.21)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수는 614명(남성 310명, 여성 304명)으로 조사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4세이다(최소연령 35세-최고 연령65세)[3].

3.3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3.3.1 종속변수: 'TV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비판 의식(CMTADC: Critical Mind of TV Affair Drama Contents).

TV 불륜 드라마의 콘텐츠에 대한 비판의식(이하 '불륜 드라마 콘텐츠 비판의식'으로 칭함) 척도는 불륜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의 내용(contents)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얼마나 비판적으로 문제의식을 갖는지를 알아보는 척도이다. 척도 내용은 선행 연구자들로부터 지적해온 불륜 드라마의 문제점을 근거로 구성하였다[7].

척도는 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내용들은 응답자들에게 불륜 드라마가 '불륜 및 외도의 지나친 미화', '불륜 및 외도를 부추김', 혹은 '가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동의(혹은 부동의)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다. 성적 사회화를 담은 TV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찰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척도를 이용하였다[4]. 5점 척도(1=아주 부동의, 5=아주

동의)로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비판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 크론바하 알파 신뢰도는 .718 이다.

3.3.2 독립변수: '정서적 성숙'(EM: Emotional Maturity)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적 성숙 척도는 혼외관계인식에 정서적 성숙이 미치는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이다[16]. 이 척도는 정서적 성숙의 특성에 대해 논의한 선행연구자인 Dean과 Smitson이 소개한 정서적 성숙의 특성을 검토하여[15,24], 자기통제력, 판단력, 책임감, 지적 성숙, 정서적 안정성, 건강한 이성 관계인식 등 6개 구성개념을 토대로 정서적 성숙을 평가한 척도이다. 척도 문항은 여섯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척도이다[3]. 척도 문항내용들 간의 내적 일치도를 평가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663 이다.

3.3.3 매개변수 1: '자기지각'(SA: Self-Awareness)

자기지각은 "개체가 개체-환경의 장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내적, 외적 사건을 지각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30,31]. 자기지각과 불륜 TV 드라마 문제의식과의 상관성을 탐색한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이다[7,31]. 이 척도는 이경렬과 김정희, 김동원이 개발한 영성척도 [27]의 핵심 하위척도인 '자각'(self-awareness)척도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자기지각 척도는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내용은 대인관계, 일어난 일, 나의 생각 및 느낌, 육체적, 정신적 현상, 벌어지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얼마만큼 알아차리고 파악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다[7].

3.3.4 매개변수2: '혼외관계인식' (PEMR: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혼외관계인식 척도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7,20,32]. 이 척도는 Thompson이 제시했던 혼외관계의 세 유형(정서적 혼외관계, 육체적 혼외관계, 정서적-육체적 혼합형 혼외관계) 등 세 가지 유형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얼마나 허용 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들(세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33]. 이 척도는 응답자의 혼외관계인식을 알아봄에 있어서, 일반적인 혼외관계가 아닌, 본인(자신)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3]. 5점 척도이며, 크론바하 알파 신뢰도는 .761 이다.

3.3.5 통제변수: 성별(gender)

성에 대한 인식 행동은 성별에 의해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보고되어 왔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혼외관계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혼외관계경험도 더 많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을 고려하여[8,12,32,34,35], 연구모형에 포함된 ‘혼외관계인식’과 ‘불륜 드라마 콘텐츠 비판의식’은 성별(gender)에 의해 유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두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때, ‘성별’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성별’(남성=0, 여성=1)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3.4 분석방법

앞서 제시했던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는 AMOS 23.0와 Mplus를 모두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절대적 적합지수(RMSEA)와 상대적 적합지수(CFI, TLI)를 제시하였다. 매개효과분석은 다중 매개분석이 용이한 Mplus를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주요변수들의 특성

본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4개의 주요 변수들은 모두 5점 척도에 의해 평가하였다. 각 척도의 평균값(Table 1)을 토대로, 네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불륜 드라마 콘텐츠 비판의식’(M=3.7634), 자기 자각(M=3.7160), 정서적 성숙(M=3.3681)은 해당 척도의 중간값(3점)은 넘었지만 각 특성에 대한 긍정적인 수준(4점 이상)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였다. 불륜 드라마 콘텐츠 비판의식(M=3.7634)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에는 약간 못 미치고 척도의 중간값 보다는 높기에 응답자들의 불륜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수준은 조금 부족한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4].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자기지각(M=3.7160)과 정서적 성숙(M=3.3681)도 좀 미흡한 수준이다.

Table 1. Means of Major Variables (N=614)

Variables	Mean	SD
CMTADC (Critical Mind of TV Affair Drama Contents)	3.7634	.6321
EM (Emotional Maturity)	3.3681	.5821
SA (Self-Awareness)	3.7160	.5382
PEMR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2.6346	.9977

‘혼외관계인식’(M=2.6346) 척도 점수는 혼외관계에 척도의 중간값(3점) 보다는 낮고, 혼외관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2점 이하)을 초과하였다. 혼외관계인식 척도는 척도 점수가 4점 보다 높을 경우,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척도 점수가 2점 이하일 때, 혼외관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응답자들의 혼외관계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약간의 부정적인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2. The Comparison of Mean of the Main Variables Between Man and Women (N=614)

Variables	Mean(SD)		t-test
	Males	Females	
CMTADC	3.73(.623)	3.81(.641)	1.651
EM	3.40(.612)	3.34(.549)	-1.375
SA	3.51(.523)	3.72(.538)	-1.283
PEMR	2.90(.930)	2.37(.996)	-6.754***

네 척도들의 평균값을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면, 불륜 드라마 비판의식, 정서적 성숙, 자기지각에서는 성별차이가 없었고, ‘혼외관계인식’에서만 성별차이가 발견되었다. 앞서 연구모형 분석에서 ‘혼외관계인식’과 ‘불륜드라마 비판의식’ 이 두 변인들에 대해서는 ‘성별특성’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할 때는 성별을 통제한 후 분석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적어도 혼외관계인식에서는 성별차이가 혼외관계 인식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 성별을 통제한 후 분석하기로 결정한 것은 올바른 선택임을 확인할 수 있다[3].

4.2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주요 변수들(4개)을 평가하기 위한 네 척도들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지표들(indicators)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왜도범위는 -.950~.213로 절대값 2미만이었으며, 첨도범위도 -1.137~.885로 절대값 7미만으로 모두 기준범위 안에 있어, 일변량 정규성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4.3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네 변수들의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s)은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적합도($\chi^2=318.756$, $df=129$, $p<.001$, $CFI=.931$, $TLI=.918$, $RMSEA=.049$)가 기준에 부합하여, 개별 측정항목 구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Table 3).

Table 3. Factor Loadings of Measurement Model (N=614)

Latent Variables	Indicators	Parameter		S.E	C.R	P
		β	T			
CMTADC	1	.670	1.000			
	2	.699	1.078	.086	12.572	***
	3	.719	1.077	.085	12.668	***
	4	.436	.704	.080	8.858	***
EM	1	.489	1.000			
	2	.630	1.452	.162	8.987	***
	3	.605	1.381	.156	8.848	***
	4	.365	.861	.132	6.548	***
	5	.596	1.176	.134	8.791	***
	6	.341	.785	.126	6.222	***
SA	1	.627	1.000			
	2	.751	1.161	.084	13.816	***
	3	.695	1.041	.079	13.196	***
	4	.663	1.052	.082	12.770	***
	5	.637	1.001	.081	12.415	***
PEMR	1	.840	1.000			
	2	.942	1.090	.066	16.496	***
	3	.413	.434	.043	10.186	***

***p<.001, **p<.01, *p<.05

4.4 모형분석결과

모형에 포함된 5개의 직접경로들 중에 정서적 성숙(EM)→불륜드라마콘텐츠비판의식(CMTADC) (-.023), 이 한 경로만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경로는 모두 유의하였다. 기혼 남녀의 정서적 성숙(EM)이 TV 불륜 드라마의 콘텐츠에 대한 이들의 비판의식(CMTADC)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자가지각(SA) 혹은 혼외관계인식(PEMR) 등을 매개로 작용할 경우, 정서적 성숙(EM)이 불륜드라마콘텐츠 비판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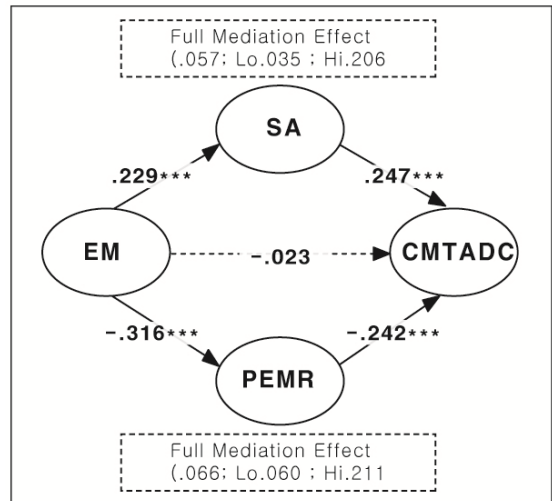


Fig. 2. The Mediating Effects of Measurement Model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혼 남녀가 정서적으로 성숙할수록 자가지각수준도 높고, 자가지각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가하여 정서적으로 성숙할수록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해 더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고, 본인의 혼외관계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을수록 불륜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비판의식 수준도 더 높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정서적 성숙 자체가 TV 불륜 드라마의 콘텐츠에 대하여 기혼 남녀가 직접적으로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자가지각’ 혹은 ‘혼외관계인식’을 매개(mediator)로 할 경우 정서적 성숙의 정도가 기혼 남녀의 불륜드라마 비판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져, ‘자가지각’ 그리고 ‘혼외관계인식’의 완전 매개효과(full mediation effect)가 입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혼 남녀가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양호한 수준의 ‘자가지각’과 ‘혼외관계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고려 사안임을 보여준다.

Table 4.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Main Variables

Direct Effects	β	B	SE	C.R/P.
EM → SA	.229	.246	.061	4.004***
EM → PEMR	-.316	-.790	.137	-5.771***
EM → CMTADC	-.023	-.029	.078	-.377
SA → CNTADC	.247	.300	.067	4.506***
PEMR → CMTADC	-.242	-.126	.029	-4.285***
Gender → PEMR	-.345	-.740	.087	-8.742***
Gender → CMTADC	-.058	-.065	.054	-1.189
Indirect Effect	β	B	C.I	
EM→(SA)→CMTADC	.057	.094	Lo: .035 Hi: .206 (Sig.)	
EM→(PEMR)→CMTADC	.066	.110	Lo: .060 Hi: .211 (Sig.)	
Model Fitness	$\chi^2=386.495$, $df=146$, $p=.000$ $CFI=.917$, $TLI=.903$, $RMSEA=.052$			

*** $p<.001$, ** $p<.01$, * $p<.05$

비록 '정서적 성숙'(EM)이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혼 남녀의 비판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해 기혼남녀가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자기지각과 혼외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기혼 남녀의 정서적 성숙 또한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혼 남녀의 비판의식 수준을 높이는데 함께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자료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기혼남성들과 기혼여성들의 비판의식은 부족하였고, 성별특성에 의한 차이도 없었다(연구문제 1).

둘째, 기혼 남녀들이 TV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데, 이들의 정서적 성숙은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연구문제 2), '자기지각' 혹은 '혼외관계인식'을 각각 매개(mediator)로 하여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연구문제 3, 4). 본 연구에서도 정서적 성숙이 직접적으로는 불륜 드라마 비판의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정서적 성숙과 자기지각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던 것과 일치한다(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

상관관계분석에 기초한 선행연구와 달리(4), 보다 역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정서적 성숙이 불륜 드라마 비판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요인들(자기지각, 혼외관계인식)과 함께 분석한 결과, 정서적 성숙이 '자기지각' 혹은 '혼외관계인식'을 각각 매개(mediator)로 하여,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점은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2개의 매개요인들('자기지각, 혼외관계인식')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간과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셋째, 정서적 성숙이 자기지각을 높일 뿐 만 아니라, 혼외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일 수 있고, 자기지각과 혼외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을수록,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기혼 여성의 자기지각이 혼외관계수용을 높인다는 선행연구결과(7)는 본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혼 남성들과 기혼여성들이 TV 불륜드라마 콘텐츠에 비판의식을 갖는데 자기지각과 혼외관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물론, 이 두 변수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서적 성숙까지 모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함의 모색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드라마는 드라마 일뿐 현실과 구분하여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당 연구를 통하여 실제로 현실의 인식과 드라마 속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그렇기에 혼외관계 문제를 자신들에게 당면한 현실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기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불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해 비판의식을 높이도록 돕는 것은 기혼 남녀의 혼외성에 대한 그릇된 환상(fantasy)을 감소시키고 불륜이라는 성적 일탈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혼외문제와 관련된 부부갈등과 결혼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혼 남녀들을 개입대상(target)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실천개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혼외관계에 연관되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clients)을 중심으로 소집단(small group)을 구성하여 소집단 단위의 개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유사한 어려움(문제)을 가진 사람들 끼리 구성된 소집단 안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지지와 자기개방이 보다 용이하다. 그리고 일부일처제 결혼제도에서 혼외관계에 연루된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사람들(클라이언트들)이 동질 집단 안에

서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과 문제를 보다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고, 토론을 통해 피드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 내용은 집단 구성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들일 수 있는 소집단 토론의 소재로 매우 유용하다. 혼외관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나 상황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심리적 저항감이나 주저함이 생길 수 있지만 마치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혼외관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나누며 토론을 이끌어가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불륜 드라마 내용의 문제점, 비현실성 등에 대한 비판의식을 높이면서 자기성찰로 이어져 혼외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입(intervention)과 실천(practice)과정을 통하여 올바른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이 정립된다면 자연스럽게 불륜콘텐츠 드라마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식 또한 정립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식의 향상을 위해서, “지각 능력 강화”, “자신의 혼외관계에 대한 문제의식 증진”, “정서적 성숙 도모”는 중요한 실천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 실천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개입전략들을 고안해 내는 것은 후속연구에 다루어야 할 또 다른 큰 연구 과제(project)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해서, 관련 여러 실천 현장(건강가정 지원센터, 가정복지관, 정신보건센터, 부부상담 및 치료기관 등등)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요구된다.

불륜드라마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주체인 드라마제작사들 또한 시청자들이 드라마의 상황과 실제의 상황을 알아서 잘 구분할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는 드라마일뿐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언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를 통하여 평소에 자기지각 수준과 혼외관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인식 등의 수준을 통하여 불륜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SF나 판타지와 같은 초현실적인 스토리들은 당연히 시청자들이 본인들의 삶과 분리하여 인식하지만, 불륜드라마와 같은 일반인의 삶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어 있는 스토리의 경우는 시청자가 처한 상황이나 현실인식에 따라서 과한 몰입을 불러오고 현실상황으로 연결시켜 인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더구나 과거에는 일정한 심의기준이 있는 방송국을 통하여 드라마들이 방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위조절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TV방영이 아니라 애초에 OTT(넷플릭스 등)상영을 목표로 만들어지는 드라마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심의기준마저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

다. 드라마 더구나 일반 사람들의 삶의 한 단면들을 다루는 드라마들이 대중에게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데 끼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제작주체들 또한 인식하고 상업적 이익추구뿐만 아니라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도 더욱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기혼 남녀의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3개의 개인 심리특성(정서적 성숙, 혼외관계인식, 자기지각)에 제한되어 이루어졌다. 단선적 분석(lineal analysis)을 지양하고,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직접효과 뿐 만 아니라, 2가지 매개효과를 함께 분석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시켜 함께 분석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성평등성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이 기혼 남녀의 성에 대한 가치를 탐색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리고 연령대,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불륜 드라마가 기혼자의 혼외성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혼자들이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에 영향을 주는 심리특성 및 성인식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이 부족할수록, 혼외관계에 대해 더 수용적임을 시사한 선행연구는 있지만,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이 기혼자들의 혼외성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중요한 후속연구의 중요한 연구 과제로 남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후속연구를 통해 연구의 내용과 범위가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J. H. Gagnon, "The explicit and implicit use of the scripting perspective in sex research", *Annual Review of Sex Research*, Vol.1, No.1, pp.1-43, 1990.
- [2] M. A. Longmore, "Symbolic interactionism and the study of sexuality", *Journal of Sex Research*, Vol.35, No.1, pp.44-57, 1998.
DOI: <http://dx.doi.org/10.1080/0022449980951916>
- [3] H. J. Lee, "The Analysis of the Mediation Effect of Individuals' Perceptions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s between Married Men and Women'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and Their

- Emotional Isolation and Emotional Maturity: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Vol.106, pp.171-206, 2021.
DOI: <http://dx.doi.org/10.46407/kjci.2021.04.106.171>
- [4] H. J. Lee, "A Study on Problems in TV Drama Contents Containing Sexual Socialization: Focusing on Adultery Content and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5, No.8, pp.63-74, 2021.
DOI: <http://dx.doi.org/10.21184/jkeia.2021.12.15.8.63>
- [5] J. R. Chapin, "Adolescent sex and mass media:A developmental approach", *Adolescence*, Vol.35, pp.799-811, 2000.
- [6] K. L. L'Engle, C. Jackson, "Socialization influences on early adolescents' cognitive susceptibility and transition to sexual intercours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18, No.2, pp.353-378, 2008.
DOI: <http://dx.doi.org/10.1111/j.1532-7795.2008.00563.x>
- [7] H. J. Lee, "The Effect of Married Women's Self-Awareness on the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Focused on the Mediated Effect of Individuals' Criticism of TV drama regarding Infidelit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JKAIS)*, Vol. 21, No.3, pp.115-123, 2020.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0.21.2.115>
- [8] I. H. Hahm, "The Gender Gap Reflected in the Sexual Relations of the Korean Family", *Women's Studies Review*, Vol.29, pp.175-210, 2012.
DOI: <http://dx.doi.org/10.18341/wsr.2012.29.2.175>
- [9] J. Y. Kim, *A Study on Social Transi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in TV Drama : Based on the 3 Major Broadcasting Companies*, Ph.D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of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Seoul, Korea, 2016.
- [10] J. H. W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Korean Society's Values and TV Melodrama: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Sand Castle' and 'Lovers'*, Master thesis, Sogang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of Media and Communication, Seoul, Korea, 1996.
- [11] M. H. Kong, "Sexual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Married Women Who Have Experienced the Extra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7, No.2, pp.1-20, 2002.
UCI: G704-001334.2002.7.2.003
- [12] Y. H. Lee & Y. S. Yi, "A Study on the Extramarital involvement of Married Men and the Related variabl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16, No.3, pp.523-533, 2007.
UCI: G704-001335.2007.16.3.016
- [13] E. E. Davis, G. N. Braucht, "Exposure to pornography, character, and sexual deviance: A retrospective survey.", *Journal of Social Issues*, Vol.29, No.3, pp.68-96, 1973.
DOI: <http://dx.doi.org/10.1111/j.1540-4560.1973.tb00095.x>
- [14] H. G. Lee, "Effects of video media viewing on adolescent sexual behavior.", *Apostolic Theology*, Vol.1, pp.123-165, 1998.
- [15] D. G. Dean, "Romanticism and emotional maturity: A further exploration", *Social Forces*, Vol.42, No.3, pp.298-303, 1964.
DOI: <http://dx.doi.org/10.1093/sf/42.3.298>
- [16] H. J. Lee, "The mediation effect of married people's sexual autonom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maturity and perceptions of own extra-marital relationship: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PNU Journals of Women's Studies*, No.31, No.1, pp.41-87, 2021.
DOI: <http://dx.doi.org/10.22772/pnujws.31.1.202104.41>
- [17] J. G. Hull, "A self-awareness model of the causes and effects of alcohol consump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90, No.6, pp.586-600, 1981.
DOI: <http://dx.doi.org/10.1037/0021-843X.90.6.586>
- [18] S. P. Glass, T. L. Wright, "Justifications for extramarital relationships: The association between attitudes, behaviors, and gender". *Journal of sex Research*, Vol.29, No.3, pp.361-387, 1992.
DOI: <http://dx.doi.org/10.1080/00224499209551654>
- [19] W. F. Harley Jr., *His Needs Her Needs: Building an Affair-Proof Marriage*. P.240, Revell Co, 2011.
- [20] S. J. Shin, "Effect of Individuals' Perceptions of Sex-role and Open Marriage on Individuals' Intention of Extra-marital Sex :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the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and Moderation Effect of Gende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3, pp.199-211, 2017.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7.17.03.199>
- [21] K. Subbarayan, G. Visvanathan, "A study on emotional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Recent Research in Science and Technology*, Vol.3, No.1, pp.153-155, 2011.
- [22] Y. O. Nam, S. J. Lee,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Cyber-sex Addiction, Exposure to Cyber Obscenities and Cyber Sexual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9, No.3, pp.185-212, 2002.
UCI: G704-000387.2002.9.3.014.
- [23] M. I. Choi, "Determinants on the Exposure to Internet Sexually Explicit Materials and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KJCS)*, Vol.53, No.2, pp.49-69, 2009.
UCI: G704-000203.2009.53.2.002.
- [24] W. S. Smitson, "The Meaning of Emotional Maturity", *MENTAL HYG*, Vol.58, No.1, pp.9-11, 1974.
- [25] J. Y. Kim, D. G. Kim, "A Study on Social Transi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in TV Drama",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30, No.6, pp.39-78, 2016.
UCI: G704-000045.2016.30.6.002.
- [26] H. J. Song, "A Stud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ublic Officials: Focusing on Job Demand-Resource

Theory",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Winter Conference Papers*, pp.2381-2401, 2017.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173738.

- [27] Duval, S., & Wicklund, R. A. *A theory of objective self awareness*, p.238, NY: Academic Press, 1972.
- [28] P. J. Silvia, T. S. Duval, "Objective self-awareness theory: Recent progress and enduring proble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5, No.3, pp.230-242, 2001.
DOI: http://dx.doi.org/10.1207/S15327957PSPR0503_4
- [29] L. Berkowitz, "Some effects of thoughts on anti-and prosocial influences of media events: a cognitive-neoassoci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95, No.3, pp.410-427, 1984.
DOI: <http://dx.doi.org/10.1037/0033-2909.95.3.410>
- [30] J. G. Kim, *Gestalt Therapy*, p.454, Seoul: Hakjisa, 1995.
- [31] G. Y. Lee, J. H. Kim, D. W. Kim, "Development of the Spirituality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5, No.4, pp.711-728, 2003. UCI: G704-000523.2003.15.4.002
- [32] W. J. Lee, "Correlates of the Perception of Married Couples about Individual's Own Extramarital Relationships and Spouse's Extramarital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0, No.6, pp.682-694, 2020.
DOI: <http://dx.doi.org/10.5392/JKCA.2020.20.06.682>
- [33] A. P. Thompson, "Emotional and sexual components of extramarit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6, No.1, pp.35-42, 1984.
DOI: <http://dx.doi.org/10.2307/351861>
- [34] J. W. Bae, *Correlation of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with sexual addiction and sexual functions in adult men and women*, Ph.D dissertation, INJE University of Department of Health, Gimhae, Korea, 2015.
- [35] J. H. Byun, *A study on the sex of couples: focusing on affair*. Master theth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of Department of Family Culture and Consumerism, Seoul, Korea, 2002.

이 희 진(Hee-Jin Lee)

[정회원]



- 2011년 5월 :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영상제작 석사)
- 2016년 2월 :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영상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한동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미디어분석, 영상산업

이 원 준(Won-June Lee)

[정회원]



- 2010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13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14년 2월 ~ 현재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가족복지, 사회복지조사론